

벤처! 새마을, 새마을

벤처산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특히 실패를 통해 진일보하는 벤처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벤처인들이여! 99세까지 88하게 사시라. 진취적인 그대들은 우리의 희망이지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오영

오영

벤처정신은 다시 살아난다.
벤처활성화의 원년. 우리의 새해여!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

김성진

한국의 벤처기업인들이 21세기의 징기스칸으로 재출발하기를 기원합니다.

CEO컨설팅그룹 김석진 회장

김석진

2005년은 2차 벤처붐의 원년이 분명합니다. 지난 5년간 교훈을 되새겨 정말 새로운 형태의 벤처와 벤처생태계로 재시작합니다. 재시작을 위해서는 정직한 경영, 투명한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교훈을 잊지 말고 단기간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윤리적인 벤처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미래연합회 김일섭 회장

김일섭



<Venture Digest> 간판에 등장한 닭 모양의 해면에는 닭이 닭양육에 대한
벤처를 사랑하는 벤처 관계자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직 머나먼 길엔 닭 양육에 대한 고민이 2005년,
이제부터 2005년에 다 함께 만들어봅시다.



벤치, 새벽을 여는 닭처럼

“흰차게 회를 치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닭처럼 2005년 벤치는 대한민국의 쇠새벽을 여는 전령사가 되어야 합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때를 알리는 시계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예비해야 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면 산에서 내려왔던 맹수들도 돌아오고 귀신들도 그 모습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또 정확한 시간에 우는 닭의 소리에 따라 일과를 측량했던 조상들은 닭이 제때에 울지 않는 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고 합니다. 초저녁에 닭이 울면 재수가 없고, 오밤중에 울면 불행한 일이 벌어지며, 해진 뒤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한 것은 그러한 까닭이겠지요. 새벽을 여는 닭처럼, 벤치는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닌 2만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시간의 상징이 되어야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처럼, 벤치

“미래를 여는 열쇠를 쥐, 우리 벤치는 언제나 무한대의 가능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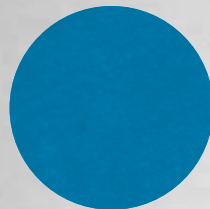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거나 뒤흔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란 늘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게 되어있지만, 어차피 진행 방향이 하나라면 앞에 놓인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선택도 없을 것입니다. 2만불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시간 위에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벤치의 손에는 지금 2005년을 여는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문을 열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기로 또 다른 시간의 문을 열 때입니다. 용기를 낸 벤치의 뒤에는 늘 무한의 행운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제 다시 벤치입니다.



봄을 여는 새싹처럼, 벤치

“봄이 되면 다시 연초록의 작은 싹이 돌아나듯 2005년 벤치는 끝없이 재생하는 생명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생명도 밀어내지 못할 것 같은 겨울내 동토에서도 부드럽고 촉촉한 잎을 틔워내는 새싹처럼 벤치는 모진 고난에도 싹을 틔우는 대한민국의 작은 씨앗입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알 수 없는 땅 속 세상에서 봄날을 기다리며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새싹만이 봄날의 푸른 싹을 틔우듯 이제 벤치는 봄의 새싹이 되어 언 땅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 어린 몸을 틔우기 위해 기어이 부동의 땅을 박차고 올라 어둡고 황량한 불황의 늪에서도 대한민국의 봄을 여는 생명의 신호탄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벤처의 초심을 간직하며 미래를 향해 더욱
매진하는 벤처인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시립대 이준우 교수

이미 산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2005년이 벤처 再탄생의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
원합니다.

중앙일보 경제부 출신임 차장

“태극기 휘날리며”
국산 S/W 세계시장으로.

우림닷컴 송희자 대표

벤처는 우리의 希望
經濟成長의 원동력!

코스닥증권시장 박상조 전무

튀지않으나 빛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디엠플러스 여미정 대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다익선”입니다.

엘릭비전 이성민 대표

2004년 목은 양금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2005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벤처문화와 토양
을 일곱시다.

레인콤 양덕준 대표

새해에는 해외진출·신규사업 등에 더욱 매진하
겠지만 문화적 소외계층에 문화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회회사에 좀 더 시간을 내야겠다고 생
각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
한 따뜻한 새해가 되기를...

티켓링크 우성화 대표

Dynamic Venture!

젊은이에게 창업은 모험입니다.

많은 젊은이에게 기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기
대합니다.

인크루드 이광석 대표

정부에서 다양한 벤처지원정책을 만들어 벤처기
업 제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 감사
드리며,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기대
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겠습니다.
2005년 우리 벤처기업은 사회공헌프로그
램을 통해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
답하고, 아름다운 벤처생태계를 만드는데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현글과 컴퓨터 백종진 대표

건강한 벤처!

젊은 벤처!

꿈을 주는 벤처와 벤처인!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財 卍

가수 유필

지난 연말 뜻깊은 벤처인들의 송년모임에 초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벤처인 여러분!

뮤지컬배우 김소현

역시 우리 벤처인들은 달랐습니다. 벤처인들의 '나눔과 도전정신'은 이번 '벤처인'과 '재도약'을 시제로 한 삼행시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무척 바빴을텐데도 속속 '벤처인다운' 특특튀는 아이디어와 '벤처스러운' 유쾌한 삼행시들이 도착하였습니다. 올유년 새해, 다시 우리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벤처인들의 새해소망과 재도약에 대한 강한 다짐이 들어있는 삼행시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벤 : 벤자민 플랭클린의 과학탐구정신과
처 : 처칠의 신념과 의지를 기본 바탕으로 한
인 : 인간경영으로 벤처기업의 시련을 이겨나가자!
재 : 재도약하는 벤처기업의 자세는 항상
도 : 도전하는 참다운 정신으로
약 : 약진하는 것이다!
김기백 _ KGB IT 경영컨설팅

벤 : 벤처정신은
처 : 처음처럼 강한
인 : 인내와 끈기로 자신있게 삶을 개척하는 것!
재 : 재도약하자! 벤처인이여~
도 : 도망가지 말자! 벤처인이여~
약 : 약해지지 말자! 벤처인이여~
이금희 _ 케이엔지니어링 관리부

벤 : 벤처인이여 힘내라
처 :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
인 : 인내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파이팅!
재 : 재기도 해보았습니다.
도 : 도약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약 : 약진하는 벤처인이 되겠습니다.
문상규 _ 화강환경 총무과

희망과 도전의 힘

벤 : 벤처 사업하면 죄다 때돈 버는 줄 알았다.
처 :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다.
인 : 인제는 안다. 얼마나 피나는 노력의 열매인지를.
김기우 _ 에듀시버릭스 기획마케팅팀

벤 : 벤처기업으로 옮긴다고 했다
처 : 처갓집에 갔더니 짜디짠 김치만(달탕)주시더라
인 : 인생이 원래 벤처거늘 왜 사랑이 식은걸까?
최충환 _ 아이콜스 경영지원실

벤 : 벤처인이라고 다 벤처인이 아닙니다
처 : 처신과 비전이 맑고 뚜렷한
인 : 인재만이 진정한 벤처인입니다.
유재진 _ 코리아IT펀드 Investment기획팀

벤 : 벤명이 속처럼 좁고 편협하게
처 : 처신하지 말고
인 : 인간적인 정감을 갖고 생활하시길
재 : 재미나고 활기차게
도 : 도전하는 우리 벤처인
약 : 약방의 감초라네
이창한 _ 넥스다임 기획팀

벤 : 벤처기업이 오늘날
처 : 처한 현실을
인 : 인화와 협력으로 극복하여 재도약을 이룹시다!
재 : 재미와 열정이 넘치는
도 : 도전과 변화로 무장한
약 : 약속으로 맺어진 신뢰의 벤처네트워크!!!
류동수 _ 안철수연구소 커뮤니케이션팀

벤 : 벤처기업 이제 끝난거야? 그런거야?
처 : 처음만 요란했지 별볼일 없는거야?
인 : 인정할 수 없어, 절대로, 그런 말은!
고명섭 _ 국제경영원 교육사업팀

벤 : 벤처 거품이 빠지고 차가운 시선 속에
처 : 처음에는 외롭더니 힘들더니
인 : 인고의 시간이 가니 따뜻한 내일이 보이네
김수용 _ 훈시큐어 부사장

벤 : 벤처인이 부딪히는 셀 수 없는 실패에도
처 : 처음처럼 한결같은 타오르는 열정 속에
인 : 인내하고 도전하면 그 열매는 달 것입니다.
재 : 재깅재깅 단 일초도 아쉬움에 밤지새우며
도 : 도전하는 젊은 열정 힘찬 응원 드립니다.
약 : 약속되는 희망한국 그들 있어 밝습니다
정시동 _ 태화일렉트론 경영지원팀

벤 : 벤처인의 자세는 말이지
처 : 처음의 다짐을 잊지않고
인 : 인내와 열정을 가져야 하는거야~~*
재 : 재빠르게
도 : 도도하게
약 : 약속르게 성공하자!!!
윤일순 _ 키코테크 영업팀





벤 : 벤츠를 탈 줄 알았다
처 : 처음 벤처 입사할 때는
인 : 인생 확 피는 줄 알았다
재 : 재미 좀 볼 줄 알았더니만
도 : 도가 지나친 꿈에는
약 : 약도 없다 ㅋㅋ~
 박선영 _ 지란지교소프트 홍보팀

벤 : 뱀뱀이 속알머리를 가진 사람은
처 : 처음부터 포기하세요!!!
인 : 인간다운 너무나 인간다운
재 : 재미 있고 유익한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 : 도전하는 벤처정신이 있어야 하니까요
약 : 약오르지 룡~~~
 오재현 _ 에이스인터랙티브 기획팀

□ ○ △ □ △ "재 도 약" T L L

벤 :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주인공들처럼
처 :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도
인 :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것
 바로 벤처
 하현진 _ 대덕대학 산학협력팀

벤 : 벤츠 한 대 사서 폼 나게 몰아 보려고
처 : 차가 돈까지 써가며
인 : 인정사정 없이 달려왔던 사업에서
재 : 재미도 못 보고
도 : 도대체 되는 일이 없었다
약 : 약한 맘먹고 안녕할까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파이팅!
 안효성 _ 코던테크 마케팅팀

벤 : 벤처인이려면
처 : 처해있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인 : 인정받는 기업으로 만드는 열정적인 사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박조현 _ 아이지시스템 홍보팀

재 : 재기발랄한 끼와 꿈을 간직한
도 : 도시의 젊은이들이여!
 때론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약 : 약한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금 일어섭시다!
 엄기현 _ 소프트비전 기업고객사업부

벤 : 벤처인이여!!
처 : 처마높이보다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는 벤처인이여!!
인 : 인간의 한계를 넘는 비즈니스를 꿈꾸어보자!
재 : 재확인해 드립니다.
도 : 도약의 길을...
약 : 약도처럼 자기의
 핵심 신념만 가지시면은 됩니다.
 이선정 _ 웰컴정보시스템 기획부

재 : 재기합시다. 벤처인이여
도 : 도래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약 : 약속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룩합시다.
 박승창 _ 폴리소프트 비즈니스 클리닉팀

벤 : 벤처기업 참으로 어렵지 그러나
처 : 처음부터 잘되는 회사는 많지 않네.
인 : 인내를 가지고 목표에 한발 한발 다가가야지
 김두식 _ Infodisc 구매·원가관리팀

벤 : 벤츠를 타는 그날에도
처 : 처음 시작하는 자세를 잊지 않는
인 : 인간다운 인간, 우리 벤처인
재 : 재미있게 일하고,
도 : 도망가기 없는,
약 : 약속 잘 지키는 우리 벤처인!
 김장선 _ 네오텍 마케팅팀

★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눔을 위한 심행시를 보내주신 벤처
 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중 10분을 추첨하여 준비한 "리벨기"
 를 보내드렸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표시를 못
 한 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